

濟衆新編의 研究

慶熙大學校 金 鍾 烈·朴 贊 國

(1) 序論

한의학 (韓醫學)은 삼국시대부터 고유한 전통의학을 바탕으로 漢土등지에서 유입되는 의학지식을 능동적으로 흡수하여 우리체질에 알맞는 의학으로 발전하여 왔고¹⁾, 통일 신라를 거쳐 고려시대에 이르러 축적된 의학지식이 독자적인 체계로 발전하였는데, 김영석의 제중입효방(濟衆立效方)을 필두로 하여 최중준의 신집어의활효방(新集御醫撮要方)등으로 流入된 의학에 독자적인 의학 및 경험을 가미한 醫書의 출판과 더불어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 삼화자향약방(三和子鄉藥方)등의 국산약재만을 사용하려는 醫書가 간행되었다²⁾. 조선시대에 이르러 의방유취(醫方類聚) 및 東醫寶鑑 같은 의학서적이 집대성됨과 아울러 조선후기에 이제마의 독창적인 학설인 체질의학론(體質醫學論)³⁾ 등이 나옴으로서 독자적인 한의학 발전의 극치를 이루었다. 그러나 근세에 이르러서는 서양의학의 유입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한의학에 대한 말살정책과 탄압정책 등으로 말미암아 수천년 동안 발전해온 한의학이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⁴⁾. 지금에 이르러서도 시대적인 변천과 인위적인 압박 -서양의학 쪽으로 기울어진 국가의 의료정책, 한의학자나 醫家들의 학문연구에 대한 열의(熱意)부족, 한의학 문헌의 難解 등으로 인하여 한의학 증흥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그나마도 한의학이 지속적으로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독자적인 의학전통을 고수하고자 했던 先學들의 노력⁵⁾과 한의학의 독자적인 학문체계와 탁월한 치료효과(즉-綜合治療, 自然治療, 根本治療, 應證治療)⁶⁾ 등이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그에 따라 정돈된 학문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논어(論語)>⁷⁾에 “옛 것을 잘 익혀서 새로운 것을 터득한다(溫古而知新)”라 하였고, <황제내경(黃帝內經)>⁸⁾에서도 “옛 것을 잘 말할 수 있다면 반드시 오늘날에도 들어맞으리라(善言古者 必有合於今)”라 하여, 옛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역대로 많은 학자나 醫家들은 고전醫書(古典醫書)들을 중시하여, 한의학의 진면

- 1) 韓國醫學史 pp29-31 김두중 탐구당 1981년
- 2) 東西醫學史大綱 pp243-254 김두중 탐구당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 p153 손홍열 수서원 1988년 서울
- 3) 四象體質醫學論 : 윤길영, 승일문화사, 1980 서울
東醫壽世保元 : 이제마가 1894년 4권2책으로 편찬한 저서로서 근본내
용은 증후분석에 의한 체질을 분석함으로서 치료하는 四象類型의 體質
醫學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 4) 晴崗醫鑑 p486-487 이종형편 성보사 1984 서울
- 5) 上揭書 p486-
韓醫學의 批判과 解説 행림서원 1957년 서울
- 6) 通俗韓醫學原論 조현영 성보사 1978년 서울
- 7) 論語集註 卷之二 爲政 p33 명문당 1976년 서울
- 8) 精校黃帝內經 卷之三九 舉痛論 p78 홍원식편

목을 자료의 고증과 관찰 등을 통하여 경험적이며 귀납적인 방법으로 궁구(窮究)하였고, 그러한 내용들을 학술이나 임상에 유용하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古典醫書의 중요성을 밝혀 보고자 하는 실험적인 연구들 - 즉, 생물학적, 생화학적, 병리학적, 약리학적, 통계학적 - 은 물론이요, 자료의 고증과 관찰에 역점을 둔 文獻研究와 臨床研究 등이 축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새로운 사실을 연구하고 밝히는 것도 좋지만, 既往에 있었던 사실과 내용들을 잘 記述하여 알기 쉽게 하는 것도, 과학적인 연구의 축적뿐만 아니라 古典醫書를 重視하는 전통적인 자세와도 부합된다고 여겨진다. 공자(孔子)도 “옛 것을 전술할 뿐이지 창작을 하지 않는다(述而不作)⁹⁾” 라고 하지 않았던가? 다만 아쉬운 일은 先行한 古典醫書들에 대한 여러 연구방법들이 대개 단편적인 것만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관련된 醫學書籍의 전반적인 내용을 두루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古典醫書들은 그 내용을 기술하거나 引用할 때 문장 전체를 引用하는 것이 아니라, 原文이 지니는 문맥상의 의미를 함축하여 짧은 句節로 표현하거나, 심지어는 짧은 引用구만으로 원문의 긴 내용을 압축하여 대신 전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시대에 맞는 내용으로 醫學書籍을 다시 記述(즉, 翻譯 혹은 國譯)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러나 古典醫書의 國譯은 古典이 지니는 특정한 시대성과 그것이 傳承된 전통적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 및, 현대적인 안목과 방법으로 고전이 해석되고 표현됨으로써 현대적 감각에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번역이어야 할 것이다¹⁰⁾.

醫書의 번역 작업도 언어의 본질적 기능면에서 그 근본을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한 사상 개념 의미 내용의 표현과 전달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문화적 사업이다. 또한 言語藝術面에서 문학적 기능을 지니게 된다. 구두표현(口頭表現)의 번역을 흔히 通譯이라고 하고 있는데, text의 번역은 문장형태를 지닌다. 그래서 翻譯文은 原文의 再現으로 이루어진 전달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text의 原文을 上位로 두어 주체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翻譯한 전달문을 從屬의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이런 생각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그리고 原文과 翻譯文을 대등한 자격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原文이 제일차적인 창조라면 翻譯文도 제2의 창조라고 할 것이다. 어느 면에서는 제일차적 창조를 극복한 제3의 창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¹¹⁾. 古典醫書의 翻譯作業도 바야흐로 學術文化藝術의 媒體的機能을 담당하며, 古典醫書의 이해에 대한 回路가 되는 창조적 생성작업이 된다.

우리 나라 古典醫書들 중에서 우리 나라는 물론 中國 日本 등에서 계속 간행하여 逆輸出도 하고 한의학도의 필독서이기도하며 우리 나라 한의학에 있어서 독자적인 학문의 뚜렷한 정점이라 볼 수 있는 책이 <東醫寶鑑(東醫寶鑑)>¹²⁾이라 볼 수 있고, 오늘

9) 論語集註 卷之七 述而 p123 명문당 1976년 서울

10) 古典國譯事業의 回顧와 展望 이계황 民族文化(第6輯) 1980년 서울

11) 翻譯論 이을환 <民族文化6輯> 1980년 서울

翻譯이란 무엇인가? : 유명란 태학사 1991년의 p11 에서 보면 월드롭(waldrop)이라는 학자는 “번역은 몸에서 혼을 짜내서 다른 몸으로 꼬여 내는 것과 같다....그것은 죽음을 뜻한다.”라고 표현했다. 번역이란 전적으로 새로운 창작물이라는 뜻이다. (중략)... 번역이란 원전과 목표어와는 다른 제3의 기호로서 비슷한 의미, 의도, 문체를 목표어로 재현시키는 작업이다. 순수한 창작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의 창작이라고 볼 수 있다.

12) 東醫寶鑑 : 1611년에 許浚등이 編纂한 綜合醫書로서 明代以前의 醫書들을 독자적인 방법으로 分類編纂하여 完成한 것.

날의 13) 韓醫學 書籍들 중에서 臨床家들에게 특히 가장 널리 읽혀지는 책이 <方藥合編> (方藥合編)¹⁴⁾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東醫寶鑑>은 너무나 방대한 분량의 글이 수록되어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그리고 <方藥合編>은 단순히 임상에만 편리하도록 處方들만을 나열하여 그에 따른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 두 책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濟衆新編> (濟衆新編)¹⁵⁾이라 할 수 있다.

濟衆新編은 정조 때 내의원 首醫였던 康命吉(康命吉)이 王命을 받들어 編述한 책으로서 성립과정을 정조 실록 23년 乙未 12월 11일조에 의하여 살펴보면 '왕께서 東宮展에 계신 10여년 동안 병간호를 하시던 중에 아침저녁으로 脈訣과 藥論을 깊이 생각하고 아울러 醫學의 이론을 연구하시고자 素問 難經 등 歷代 醫書들을 살펴보시다가 우리 나라 醫書中에서 許浚의 東醫寶鑑이 가장 자세하나 문장이 번거롭고 내용이 뒤섞여 있으며 빠진 것이 많다고 여기셨다. 왕께서 그릇된 것을 바로하시고 예를 들어 수민묘전(壽民妙詮)¹⁵⁾⁹卷을 만드시고는 內醫院에 명령을 내려 여러 醫書들을 널리 모아 번잡한 것을 없애고 요점만을 취하는데 중간중간에 經驗方을 덧붙여 책을 編纂하게 하였다. 그 책을 加減하기를 쉬지 않고 하여 왕의 寶位 24년에 책이 완성되었다.' 라 하였다. 위와 같이 濟衆新編을 編纂하게 된 것은 실지 臨床에 실용되고 있는 내용들을 쉽게 찾아보고 임상에 편리 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濟衆新編은 編輯內容으로 보아 東醫寶鑑을 根幹으로 여러 醫書들의 내용을 加減하여 이루어졌고, 또한 濟衆新編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方藥合編이라 할 수 있으므로, 濟衆新編은 東醫寶鑑 方藥合編과 相關關係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本書은 우리 나라 독자적인 한의학 학문의 주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오늘날에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려운 漢字와 전문적인 述語들로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독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濟衆新編>내용의 어려운 漢字와 전문적인 述語를 알기 쉽게 풀이하는 일은, 傳統 韓醫學의 체계를 현대적으로 再定立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西洋醫學 연구자들과 일반 사람들의 관심을喚起시켜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增進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濟衆新編>의 國譯을 통해서 이 책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평가가 필요로 하지만 현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로 하는 이런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선 濟衆新編을 翻譯함에 있어서 책은 杏林書院에서 刊行한 濟衆新編을 根幹으로 原本東醫寶鑑¹⁶⁾을 참고로 하고 참고서적으로는 國譯東醫寶鑑¹⁷⁾과 國譯編注醫學入門¹⁸⁾을 참고로 하여 難解한 漢字와 어려운 述語들을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翻譯을 試圖하여보았다. 翻譯方法으로는 原文에 충실하게 直譯을 爲主로 하였다. 해석상 未備한 점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 더 既存 古典醫書들의 翻譯과 比較檢討하여

13

14) 方藥合編 : 1885년에 黃道淵이 집필한 處方臨床書로서 濟衆新編을 根幹으로 여러 醫書에서 뽑아낸 臨床處方便覽冊이다.

15) 韓國醫學史 p 390 김두중 탐구당 1981 서울
수민묘전(壽民妙詮) : 정조의 홍제전서 속에 있는 것으로서 東方風俗의 方術을 賤視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고 東醫寶鑑 중에서 우리 나라 風俗에 적합한 것을 손수 選別하여 編輯한 것이다.

16) 原本 東醫寶鑑 대성문화사 1981년 서울

17) 國譯東醫寶鑑 東醫寶鑑國譯編纂委員會 풍년사 1966년 서울

18) 國譯 編注醫學入門 안병국역 南山堂 1985년 서울

研究補完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2), 濟衆新編의 翻譯

가. 濟衆新編 머리글 (濟衆新編 序)

‘天地의 큰 德은 生하는 것¹⁹⁾’으로서 이미 낳으시고 길러 주신다. 생활을 넉넉하게 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음식물과 약뿐이지만, 반드시 聖人이 天下를 다스리던 방법에 따랐던 것이다.²⁰⁾ 그러므로 神農이 온갖 藥草의 맛을 본 것은 百姓에게 農事를 가르치는 사이에 하였고²¹⁾, 黃帝는 농사짓는 것을 살피는 즈음에²²⁾ 질병에 대해 묻고 답하였으니,²³⁾ 醫學도 聖人이 百姓들을 다스리고 보살피는 일에 관계되는 것은²⁴⁾ 오랜 예로부터 있어 왔다.

우리 임금님²⁵⁾께서 先祖²⁶⁾의 병을 看護하실 때에 백성들을 널리 보살피고자 하는 어지신 마음으로 太醫 康命吉로 하여금 예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의학책들을 살펴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하고 찾아 번거롭고 뒤섞인 것을 없애고 빠진 것을 더하게 하여 陰陽을 살피고 內外를 판단하며 診斷方法을 갖추고 경험들을 모아 項目別로 나누어 같은 種類別로 모아 要點만 제시하여 비록 먼 외딴 시골의 困窮한 백성이라도 이 책을 펼쳐보면 저절로 病證에 맞는 處方을 알 수 있게 하고자 하셨다.

이에 책이 모두 8篇으로 이루어졌기에 완성을 아뢰니, 책의 이름을 濟衆新編으로 하라 하시고 內閣²⁷⁾에 명령하시기를 책을 印刷하여 널리 頒布하라 하셨다. 또 내가 內局²⁸⁾에 提舉²⁹⁾로 있다고 하여 序文을 지으라 하시기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堯舜은 큰 聖人이지만 널리 베푸시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셨다.³⁰⁾’ 그러나 저 두 聖人의 다스림은 넓고도 크며 밝고도 밝아 온나라 百

19) 周易集註 訓辭 下 p1075 서울 이이회 1982

주) 施生而不僞 故 能常生 故曰大德

天地有陰陽之施 總是生萬物, 聖人有仁義之用 總是生萬民

20) 書傳集注 皋陶謨 P97 서울 二以會 1982年

聖人之代其工이 千工人其代之로 되어 있다.

千工은 自然의 職을 일컬음.

21) 史記 三皇紀 P1 서울 景仁文化社

炎帝以火名官 耨木爲事 耨木爲事 耨振之用 以教萬人 始教耕, 故號神農

氏 於是作丕祭 以耨鞭 鞭草木 始嘗百草 始有醫學

22) 史記 三皇紀 P2 서울 景仁文化社

軒轅 乃修德振共 治五氣 藝五種(五穀) 培萬民 度四方

順天地之紀 幽明之占 死生之設 存亡之難 時播百穀草木 淳化鳥獸蟲蛾

旁羅日月星辰 水派土石金玉 勞動心力耳目 節用水火材物 有土德之瑞

故號皇帝

23) 黃帝內經

素問者 皇帝與岐伯及諸臣 平素問答之書

24) 上揭書

上古之人 得聖人之教化 內修養生之道 外遊賊害之邪

25) 正祖大王

26) 英祖大王

27) 內閣은 國家最高議決機關

28) 淸 會典事例 太醫院에 內局은 修製藥餌 本院官진視케 하는곳으로, 卽 宮中醫療機關이다.

29) 文獻通考 職官考에 提舉는 벼슬 이름으로 나온다.

30) 論語集注 卷之6 雍也 P120 서울 明文堂

姓들이 '밥 갈아먹고 우물 파서 마시는³¹⁾' 즐거움을 다 가지게 되었으니, 어찌 한 사람이라도 救濟하지 못함이 있으리요마는, 단지 聖人은 스스로 聖人으로 여기지 않고 부족하게만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孔子가 '堯舜같은 사람도 不足하게 여겼다'라 한 것은, 堯舜께서 최고로 일 잘하고 功勞가 매우 큰 것은 바로 많은 사람을 구제한 것임을 매우 讚嘆하여 말씀한 것이다.

조심스럽게 살펴보니 우리 임금님의 政治는 農事를 重하게 여기시고 德은 외로운 百姓들에게 恩惠를 洽足하게 베푸시는데³²⁾ 있으시다. 자신의 福을 아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셔서³³⁾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었는데도 널리 구제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여겨 그 간절한 뜻을 이 濟衆新編에 두게 된 이유이다.

殿下의 마음은 바로 堯舜의 마음으로서,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고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德이 바로 天地가 萬物을 生成하는 仁과 같으시니, 아름답고도 찬란하시다.

옛글에 '數(원리)³⁴⁾는 나열할 수 있으나 그 본 뜻은 알기 어렵다'라 하였는데 이것은 대개 六藝³⁵⁾에 대해서 말한 것이나, 醫術 또한 六藝의 하나이다. 針石湯 草木蟲魚 五苦六辛³⁶⁾ 등은 數라 할 수 있고, 性命의 根源을 研究하고 六氣의 운수를 판단하며 營衛의 분야를 나타내고 백성들을 中和³⁷⁾의 境地로 이끌어 오래도록 살게 하는 것을 義라 할 수 있다. 數를 비유하면 '俎豆之事 有司存焉³⁸⁾'과 같은 일이라 누구나 알 수 있지만, 義는 英特하고 聰明하지 않으면 누가 알 수 있으리요.

내가 前에 殿下의 가르침을 받으니, '뜻성인들의 말씀에는 모든 이치가 다 갖추어져 있지만 이미 말씀하신 것이 많지 않고 또 말씀하지 않은 것도 적지 않다. 비유하여 보면 醫家들이 이미 五味는 각각 어떤 藥性만 있다고 하지만, 어떤 藥性은 寒證에 맞는 것인데 도리어 熱證에 쓰이기도 하고, 어떤 藥性은 熱證에 맞는 것인데 도리어 寒證에 쓰이기도 하니, 이것은 의원이 그 藥性을 研究하고 變化시켜 사용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미 그 藥性이 본래는 寒證에 맞지만 혹 熱證에 쓰고, 본래는 熱證에

'子曰 何事於仁 必也聖乎 堯舜 其猶病諸'

31) 楚書 擊壤歌

耕鑿은 鑿井而飲 耕田而食의 준말이다.

32) 書傳集注 無逸下 P 238 서울 二以會

惠鮮者 饒寡之人 垂首喪氣 資予予給之 使之有生意也

33) 上揭書 洪範 P467

劬時五福 用懋錫厥民

注)集福於上 非厚其身而已 用懋其福 以與庶民

34) 老子

多言數窮, 河上公注, 數 謂理數也

35) 周禮 地官 大司徒

六禮는 禮 樂 射 御 書 數를 말한다.

36) 漢書 藝文志

經方者 本草石之寒溫 量疾病之淺深 假藥味之滋 因氣感之宜 辨五苦六

辛 致水火之齊

五苦六辛는 五臟病에는 苦味の 藥을 쓰고 六腑病에는 辛味の 藥을

써서 치료한다는 뜻이다.

37) 中庸 P251 서울 반포처 二以會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

38) 論語集注 卷之8 泰伯 P270 서울 반포처

맞지만 혹 寒證에 쓸 수 있는 것은 藥性의 근본이 이런 이치를 갖고 있는 것이지 그 藥性 밖에 별도로 다른 이치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 하셨으니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글로서는 나타낼 수 없는 뜻이니, 의뢰된 사람은 반드시 깊이 생각하여 그 내용을 이해한 뒤에야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 數로서 義를 구하는 妙味가 이에 있기에 감히 같이 記錄하는 바이다.

正祖 23年 己未, 大醫輔國 崇緣大夫 議政府左議政

李秉謀가 삼가 엮드려 序文을 올 립니다.

나. 凡例

1. 옛 處方들이 비록 많지만 病證을 論한 것이 너무 번잡하여 배우는 사람들이 요점을 알 수가 없기에, 이에 널리 여러 醫書들을 구하여 번잡함을 없애고 요점만을 취해서 病證과 脈을 각각 분류하고 쓸 수 있는 處方을 아래에 열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눈에 다 알 수 있게 하였다.

1. 民間 處方이라도 쓸 만한 것은 수록하였다.

1. 脈證治 3조항을 여러 책들 중에서 가장 要緊한 것만 취해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려워 引用한 책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단지 處方 아래에만 찾아볼 수 있도록 책이름을 표시하였다.

1. 老人病은 젊은 사람과 다르기에 특별히 더하여 보충하였다.

1. 瘟疫의 治法에서는 經驗하지 못한 옛 處方이 많아 概略만을 기록하였다.

1. 藥性을 해석한 책들이 많이 있으나 너무 번잡하므로 단지 萬病回春 壽世保元歌括만을 싣고, 또 새로운 83개를 더 붙였다.

1. 평소에 경험한 處方과 간혹 나의 생각대로 病證을 論하여 덧붙였는데 猥濫됨을 피할 수 없지만 새로 기록하고서는 모두 다 '新增'이라 써서 구별하였다.

1. 內醫院에서 임금님께 올린 약들은 다 內局이라 써서 구별하여 두었다.

----中 略----

발문(跋文)

곰곰이 생각해보니 先王 己丑年에 本人 康命吉이가 太醫院에 들어 왔습니다.

殿下께서 王世子로 계실 때에 나를 들라 하시어 醫學의 原理를 물으셨습니다.

素問 難經으로 부터 歷代의 여러 醫書 들에 이르기까지 깊고 隱微한 뜻을 다 살피시고 헤아리지 않은 것이 없으신데도 臣으로 하여금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말하라 하셨습니다. 이어 敎書를 내리시기를 “先王께서 병을 療養하실 때 내가 看護하는 틈에 醫書들을 두루 살펴보니 術을 아는 데는 醫學보다 나은 것이 없으며 또한 百姓을 다스리는 사람은 더욱 醫學에 뜻을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 나라 醫書들 중에서 許浚의 東醫寶鑑이 상세하고 자세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문장이 혹 번거롭고 말이 혹 거둬지며 症狀도 빠져 있는 것도 있고 應用處方들도 빠져 있는 것이 많더라. 內經에 '요점을 아는 사람은 한 말로 끝내지만 요점을 모르는 사람은 흠어져 끝이 없다'라 하지 않았던가, 그대는 널리 여러 책들을 모아 번거로운 것을 없애고 요점만을 취하여 별도로 한 권의 책을 만들라”고 하시었습니다. 나는 본래부터 성품이 庸劣하고 어리석으며 배운 것이 부족하기에 殿下의 命을 받고서는 두렵고 두려워 밤낮으로 마음 바쁘고 급하여 부지런히 여러 醫書들을 모아 殿下의 가르침을 한결같이 따라 번

거러움을 없애고 요점만을 취하여 8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매편마다 완성하여 殿下께 올리면 殿下께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기를 지시하시면서 수십 번이나 閱覽하시고서야 책이 완성되었다. 이에 내각(內閣)에다 책을 인쇄하여 온나라에 頒布하도록 命하시었으니, 天下萬代에 殿下의 백성을 널리 구하고자 하시는 德을 입게 하시었습니다. 생각컨대 내가 책을 編纂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이 진실로 큰 영광이기에 삼가 몇 字 적어 그 본 뜻을 알리고자 한다.

己未年 4월에,

승록대부 행지 중추부사 康命吉이 손을 모으고 머리 숙여 조심스럽게 기록하는 바이다.

(3). 考 察

우리 나라 醫學은 三國時代부터 고유한 傳統醫學을 바탕으로 漢土등지에서 유입되는 의학지식을 능동적으로 흡수하여 우리 체질에 알맞는 의학으로 발전하여 왔고, 統一 新羅를 거쳐 高麗時代에 이르러 축적된 의학지식이 독자적인 체제로 발전하였는데, 유입된 의학에 독자적인 의학 및 경험등을 가미한 鄉藥方書(즉 三和子鄉藥方 鄉藥古方 東人經驗方 鄉藥惠民經驗方 鄉藥簡易方 등)가 출판 되었으며, 朝鮮時代에 이르러 鄉藥方書를 집대성한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의 간행과 중국 의학서적을 自國醫學의 自立을 위해 분류 정리한 의방유취(醫方類聚) 및 東醫寶鑑(東醫寶鑑) 등과 같은 의학서적이 집대성되었다.

그러나 鄉藥集成方이나 東醫寶鑑은 너무나 방대한 분량의 글이 수록되어 있고 내용도 번잡하게 나열되어 있어 짧은 시간 안에 찾아 임상에 바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결점이 있다. 그리고 濟衆新編이 쓰여진 당시의 實用主義 사상에 영향을 받아 임상에 直結될 수 있는 醫書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한국의학을 대표하고 있는 東醫寶鑑을 근간으로 하여 주명신(周命新)의 醫門寶鑑(醫門寶鑑), 康命吉의 濟衆新編 등이 쓰여지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후대에는 좀더 簡明性을 추구하게 되어 임상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더 簡易化된 臨床醫書들이 나오게 되었으니, 황도연(黃度淵)의 의종손익(醫宗損益), 의방활투(醫方活套), 方藥合編(方藥合編) 등등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臨床醫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참고하는 醫書로서는 東醫寶鑑과 方藥合編이라 할 수 있는데, <東醫寶鑑>은 너무나 방대한 량의 글이 수록되어 있고 내용도 번잡하여 짧은 시간 안에 찾아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方藥合編>은 단순히 임상에만 편리하도록 處方들만을 나열하여 그에 따른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 두 책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살린 것이 <濟衆新編(濟衆新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濟衆新編은 한국의학에 있어서看過할 수 없는 醫書으로 史料되기에 濟衆新編에 대해서 몇가지로 나누어 全般的인 考察을 하여 보고자 한다. 1, 著者の生涯에 대해서 2, 濟衆新編의 成立에 대해서 3, 構成과 內容에 대해서 4, 處方에 대해서 5, 藥性에 대해서 순으로 살펴본다.

1. 著者の生涯에 대해서³⁹⁾

54) 참고서적 : 정조실록(正祖實錄) 순조실록(純祖實錄) 한국의학사(韓國醫學史) 조선인물사(朝鮮人物史) 조선도서도해(朝鮮圖書解題) 순천강씨족보(順天康氏族譜) 의과방목(醫科榜目)

이책의 著者인 康命吉(康命吉)은 본관이 순천(順天)이고 이름은 명휘(命徽)이며 字는 군석(君錫)이다. 저자는 강덕령(康德령)의 세째 아들로 1737년 승평(昇平) 땅에서 태어났다. 康命吉의 親家와 外家は 다 醫業을 하던 집안이었고, 특히 증조부 강여태(康汝泰)와 조부 강천구(康天衢)는 內醫를 지내셨으며 著者의 아버지 강덕령(康德령)은 武官을 지내셨다. 이러한 의학의 家風과 강직한 부모의 가르침을 어렸을 때부터 名醫가 될 수 있는 자질을 받았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후 英祖44년(1768) 戊子 式年試에 醫科에 급제하고, 그 이듬해 비로소 內醫院 醫官으로 들어갔다. 內醫가 되고 나서는 왕세손으로 있던 正祖와 의학에 대해 談論을 나누기도 하고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正祖18년(1794)에 內의원 首醫가 되었으며, 수의로 봉직하는 동안 양주목사 지중추부사 승록대부등을 거쳤다. 內醫院首醫로 있는 동안 왕명(정조 23년, 1779년 12월)으로 濟衆新編8권을 편찬하였다. 純祖1년(1781)에 正祖의 병환을 치료하다가 過失을 범하여 왕이 죽었다고하여 그 책임을 지고 다른 內醫들과 같이 귀양가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의 著書로는 濟衆新編外에 통현집(通玄集) 5권이 있다.

2. 濟衆新編의 成立에 대해서

濟衆新編은 정조(正祖)의 命으로 太醫院의 首醫로 있던 康命吉에 의해서 1799년에 완성된 책으로 모두 8권으로 이루어졌다.

凡例에 “(上略)---‘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더욱 의학에 뜻을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中略)---그대는 널리 여러 책들을 모아 번거러운 것을 없애고 요점만을 취하여 별도로 한 권의 책을 만들라’고 하시었습니다. --- (中略)---여러 醫書들을 모아 殿下의 가르침을 한결같이 따라 번거로움을 없애고 요점만을 취하여 8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매편마다 완성하여 殿下께 올리면 殿下께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기를 지시하시면서 수십 번이나 閱覽하시고서야 책이 완성되었다. 이에 내각(內閣)에다 책을 인쇄하여 온 나라에 頒布하도록 命하시었으니, --- (下略)”라 하였듯이 本書의 성립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 책은 康命吉이 正祖의 명으로 책을 편술하였고 또한 正祖 자신이 편술한 책을 직접 일일이 加減修整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왕의 자신이 손수 책의 편집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本冊은 康命吉의 개인에 의한 著書가 아니라 직접 나라에서 編輯한 醫書임을 알 수 있다.

이 濟衆新編은 체제가 整沿하고 문장이 簡潔하며 요약되어 보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 책으로 편집되었기에 이 점이 당시 일반 醫家들에게 널리 애용되게하였고, 編纂된 후에도 수차례 刊行되었으며, 또한 純祖17년에 淸 京都經國堂에서 重刊 되었다.

3. 濟衆新編의 構成과 內容에 대해서

濟衆新編 著者 自身の 跋文에 의하면 “우리 나라 醫書들 중에서 許浚의 東醫寶鑑이 상세하고 자세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문장이 혹 번거롭고 말이 혹 거둬지며 중상도 빠져 있는 것도 있고 응용 處方들도 빠져 있는 것이 많아 ---- 널리 여러 책들을 모아 번거러운 것을 없애고 요점만을 취하여 별도로 한 권의 책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實用的이고 實證的인 學風의 영향으로 실질적으로 임상에 직접되는 醫書가 필요로 하게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東醫寶鑑에서 볼 수 있는 浩繁하면서 雜多한 것을 실용주의 學風에 맞는 醫書들이 쓰여졌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

인 것으로 醫門寶鑑과 濟衆新編을 들 수 있다. 濟衆新編은 저자의 跋文에서처럼 문장이 번거롭고 내용이 뒤섞여 있으며 빠진 것이 많은 것을 국내외 醫書 21종을 참고하여 번잡한 것을 없애고 요점만을 취하여서 임상에 편리하도록 서술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濟衆新編의 구성과 내용을 東醫寶鑑과 비교하여 보고, 濟衆新編의 특징과 또 당시의 비슷하게 쓰여졌던 醫書인 醫門寶鑑과의 상관관계도 살펴본다.

우선 1) 構成에 대해서 i) 編制와 疾病分類體系 ii) 疾病分類內容으로 東醫寶鑑과 비교하여 보고, 그다음 2) 內容特徵에 대해서 살펴보고 3) 醫門寶鑑과 濟衆新編의 상관관계 비교하여 본다.

1) 構成에 있어서

(i) 編制와 疾病分類體系의 比較

가) 編制의 比較

東醫寶鑑

內景篇(附, 修養, 養老)

卷1: 身形 精氣神, 卷2: 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 卷3: 五臟六腑 肝臟 心臟 脾臟 肺臟 腎臟 膽腑 胃腑 小腸腑 大腸腑 膀胱腑 三焦腑 胞 蟲, 卷4: 小便 大便

外形篇

卷1: 頭面 眼, 卷2: 耳 鼻 口舌 牙齒 咽喉 頸項 背, 卷3: 胸 乳 腹 臍 腰 脇 皮 肉 脈 筋骨, 卷4: 手足 毛髮 前陰 後陰

雜病篇

卷1: 天地運氣 審病 辨證 診脈 用藥 吐 汗 下, 卷2: 風寒(上), 卷3: 寒(下) 暑 濕 燥 火, 卷4: 內相 虛勞, 卷5: 斗亂 嘔吐 咳嗽, 卷6: 積聚 浮腫 脹滿, 卷7: 瘡瘡 瘟疫 邪祟 癰疽(上), 卷8: 癰疽(下) 諸瘡, 卷9: 諸傷 解毒 救急 怪疾 雜方, 卷10: 婦人, 卷11: 小兒

湯液篇

鍼灸篇

濟衆新編

卷1: 風寒暑濕燥火

卷2: 身形 精氣神 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

卷3: 五臟六腑 蟲 小便 大便 頭面 眼 耳 鼻 口舌 牙齒 咽喉

卷4: 頸項 背 胸 乳 腹 臍 腰 脇 皮 肉 脈 手足 毛髮 前陰 後陰 霍亂 嘔吐 咳嗽

卷5: 積聚 浮腫 脹滿 瘡瘡 瘟疫 邪祟 癰疽 諸瘡 諸傷 解毒 救急 雜方

卷6: 婦人, 卷7: 小兒 頭疹 麻疹 養老, 卷8: 藥性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濟衆新編은 東醫寶鑑 編制를 위주로 하였는데, 東醫寶鑑은 內景 外形 雜病 湯液 鍼灸 등의 순으로 生理臨床學的인 면을 중요시 한 반면에, 濟衆新編은 1卷 風寒暑濕燥火 2卷 內傷 虛勞 身形 --- 6卷에 婦人 胞 7卷에 小兒 頭疹 麻疹 養老 8卷에 藥性歌로 이루어져 病理臨床學的인 측면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질병분류체계로 본 비교 (風門을 중심으로)

A) 東醫寶鑑에서는

中風微漸 調治豫防 熱生風 肥人多中風 中風所因 中風大證 賊風虛邪中人

中風大法有四 中風之名各不同 脈法 風有血脈中腑中臟之異

卒中風救急 開噤法 取嚏法 取吐法 熏法 不治證

暴仆暴瘳 神蒙昧 口眼喎斜 手足癱瘓 四肢痠痠搖擗爲風疾 痰涎壅盛

中風熱證 中風虛證 中風宜調氣 風非大汗則不除 風病須防再發 小中不須深治
 中風能食 傷風證 諸風病名 風病治法 諸風通治
 <風痺之始 三痺 五痺 痺脈 痺病形證 痺病吉凶 痺病多兼麻木 風痺與爲相類
 痺病難治 痺病治法 痺證病名及用藥>
 <歷節風病因 歷節風證候 歷節風治法禁忌法>
 <破傷風病因 瘧與瘧通稱破傷風 破傷風形證 破傷風脈 破傷風治法
 破傷風之治同傷寒三法 瘧有剛柔二證 瘧與癰相似而實不同又不可作風治
 破傷風凶證> 單方 針灸法

B) 濟衆新編에는

脈法 卒中風救急 中腑 中臟 臟腑具中 中血脈 暴瘡 口眼喎斜 手足癱瘓 痰涎壅盛
 中風熱證 中風虛證 中風宜調氣 諸風通治 豫防中風 風痺 歷節風 破傷風

(ii) 질병분류내용의 비교

가) 診斷法 즉 脈法의 비교 (風門을 중심으로)

A) 東醫寶鑑에는

(上略)... 0中風脈遲浮可治大數而極者死(丹心) 0中風脈浮滑兼痰氣其或沈滑勿以
 風治或浮或沈而微而虛扶危溫痰風未可疎(脈訣) 0大法浮遲者吉急疾者凶 0... 下略

B) 濟衆新編에는

中風脈浮滑兼痰氣微而虛者不可疎散浮遲者吉急疾者凶

나) 증상의 비교(卒中風救急に 대해서)

A) 東醫寶鑑에는

卒中風救急, 上略... 0氣虛卒倒濃煎人參黃芩湯加竹瀝薑汁服(丹心) 0卒中昏倒
 不省牙噤涎潮口眼喎斜精神恍惚倉卒之際以手大指ㄷ刻人中卽省或急令人將病者
 ... 中略... 或急以三稜鍼刺手十指甲角十井穴將去惡血就以氣鍼刺合谷二穴人中
 一穴皆是良法如未效用通關散吹鼻卽提起頭頂髮候有瘵可治與口噤不開以破關散

擦之

口卽開多灌香油加麝香一二分或... 中略... 0卒中風不省通用至寶丹牛黃清心元
 龍腦小合香元(方門奇問)牛黃金虎丹以竹瀝薑汁香油童便調和灌下(俗方)
 開噤法, 上略... 0口噤者烏梅肉和南星細辛末以中指搯藥擦牙口自開(直指)... 下略

B) 濟衆新編에는

0昏倒牙噤涎潮喎斜精以大指ㄷ人中刺十指井穴及合谷人中竹瀝薑汁香油童便調小
 合香元(奇問)牛黃清心元灌之香油調麝香一二分灌之 0痰盛者白礬水吐之
 口噤者烏梅肉和南星細辛末以中指搯藥擦自開 0虛者獨參湯(奇問)加竹瀝薑汁
 0中暑中寒中濕痰厥氣厥食厥熱厥虛暈等證多皆卒倒不語證類卒中風勿以風治各考
 本門治之

다) 處方을 비교(卒中風に 대해서)

A) 東醫寶鑑에서

牛黃清心元, 牛黃金虎丹, 攝生飲, 省風湯, 奪命散,

B) 濟衆新編에서

內局牛黃清心元, 奪命通關散(保元), 省香正氣散(入門), 小續命湯

2) 內容의 特徵에 있어서

i) 濟衆新編은 위에 있는 것처럼 질병의 분류방법이 실제 임상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簡易하면서 합리적으로 해 놓았는데, 序文에도 보면 “예로부터
 지금까지 ---- 요점만 제시하여 비록 먼 외딴 시골의 困窮한 백성이라도 이 책을 펴

쳐 보면 저절로 病症에 맞는 處方을 알 수 있게 하고자 하셨다.” 라고 하여 醫學을 배우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병을 鑑別診斷하고 治療對策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韓醫學의 根本은 질병을 계통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대처하는 辨證論治에 의거하고 있는데, 이 濟衆新編도 역시 한의학의 기본원리인 辨證論治에 근거하여 이루어 졌음을 볼 수 있으니, 凡例에도 “옛방문이 비록 많으나 病症候을 論한 것이 더욱 복잡하여 醫學을 배우는 사람들이 요령을 알지 못하기에 方門을 取하여 --- 症狀과 脈을 각각 분류하였다”라고 하였듯이 濟衆新編은 暑濕燥火 등 80여 項目을 나누어 분류하고 또 그 項目마다 다시 脈證治의 3개 조항을 나누어 분류하였는데 脈證에서는 病因의 機轉과 症狀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각각의 증상을 병인에 따라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여러 處方들을 제시하였다.

濟衆新編의 風門을 예를 들어 보면

脈) 中風脈浮滑兼痰氣微而虛者不可疎散浮遲者吉急疾者凶

證) 0昏倒牙噤涎潮喝斜精以大指人中刺十指井穴及合谷人中竹瀝薑汁香油童便調小合香元(奇問)牛黃清心元灌之香油調麝香一二分灌之 0痰盛者白礬水吐之 0噤者烏梅肉和南星細辛末以中指搽藥擦自開 0虛者獨參湯(奇問)加竹瀝薑汁

0中暑中寒中濕痰厥氣厥食厥熱厥虛暈等證多皆卒倒不語證類卒中風勿以風治各考本門治之

治) 內局牛黃清心元, 奪命通關散(保元), 省香正氣散(入門), 小續命湯

이것은 장기(張機)의 상한잡병론(傷寒雜病論)에 “觀其脈證知犯何逆隨證治之”라고 하였듯이 어디까지나 한의학의 질병진단이나 질병치료의 기본원칙인 辨證論治에 입각하여 책이 서술되어진 것임을 볼 수 있다.

ii) 虛勞門條의 신증관견에서는 “어른 아이 論할 것 없이 人蔘 附子를 陽分에 熱이 있을때 쓰면 곧바로害가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지만 만약 熱이 陰分에 있을때 쓰면 겉으로는害가 없는 것 같아 溫熱의 약을 쓰고서도害가 없다고 여기나니 --- (中略)--- 病이 陰分에 있을때 熱藥을 쓰면 津液을 다 없애고 그 다음으로 목숨이 다 하게 된다. --- (中略)--- 뒷 날의 高明한 사람을 기다린다.”라고 하여 陰陽의 寒熱에 있어서 陽中の 熱病에 熱藥을 쓰는 것을 조심하듯이 陰中の 熱病에도 熱藥을 조심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임상을 하면서 보고 느낀 부분을 밝혀둠으로서 자기의 편견이나 일부 학설에만 편향되지 않고 실제 올바른 임상에 유의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ii) 이 책에서는 重複을 피해서 줄여 놓은 것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皮門에서 麻木은 風門을 보라.

前陰門의 木腎陰萎陰冷에서 (上略)... 虛勞門을 참고하라.

後陰門의 痔病有五에서 腸風臟毒은 血門의 便血條를 보라.

咳嗽門의 勞嗽夜嗽에서 (上略)... 火門의 陰虛火動條를 보라.

脹滿門의 補中行濕湯 處方에 보면 ... 分類注를 보라.

虛勞門의 鷄膏에 보면... 材料의 加減은 전부 活法에 있다. 등등이다.

우선 4개는 중복을 피해 놓은 것으로 알 수 있고,

“脹滿門의 補中行濕湯 處方에 보면 分類注를 보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入門의 鼓脹門에 의하면 補中行濕의 處方 가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分類注라 하여 濟衆新編에 기록하여 놓은 것이다. 이로 보아 더 나아가서 濟衆新編은 病症들을 東醫寶鑑과 비교하여 보면 상당한 내용들이 醫學入門을 중심으로 하여 쓰여졌음을 살필 수 있는데, 濟衆新編은 東醫寶鑑의 編制에 醫學入門의 내용으로 記述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虛勞門의 處方중 鷄膏에 보면 재료의 가감은 전부 活法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 處方은 著者가 더한 것인데도 活法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은 이 또한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그 出典을 찾기가 어렵다.

iv) 濟衆新編은 東醫寶鑑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들을 제거하고 임상에 직결되는 내용들만 기술하였지만, 그러나 내용중에서 우선 婦人門의 千金種子方에 보면 進火之時至陰節間而止不爾則過一宮矣 蓋深則少陰之分肅殺之方何以生化 淺則厥陰之分融和之方 故能發生所以受胎之處在淺不在深也 非經後不可用事 經後一日男二日女三日男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의 道家적인 철학공론이 있어 현대적인 개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인 것 같다.

또한 風門에 斑龍固本丹 處方에 보면 --- 鹿角連蓋骨者佳自解者不用去蓋至生淨---라고 된 부분에서 生淨이라고 한 것은 國譯의 의미로서 어떤 의미로 해야할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婦人門의 咳逆과 產後見鬼症語 사이에는 그내용과 處方이 서로 다르기에 原 東醫寶鑑을 참고로 하여 不語篇을 加味하여 기록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42. 해역(咳逆): 그치지 않고 죽을 듯하면 官桂 5돈, 生薑汁 3홉을 달여 2홉정도 되거든 데워서 먹고, 손에 불을 쬔여 등을 어루만져 따뜻하게 하고 때때로 약물을 바른다. 薑餅거미집을 3-5개 薑을 내서 뜨겁게 머금는다. 當歸 玄胡索 血竭 沒藥 각 1돈씩을 가루내고 2돈씩 어린아이 오줌에 타서 먹는다. 43. 불어(不語) 나쁜피가 心에 들어가 心氣를 막아서 생긴다. 熱痰이 心을 막아서 올 때는 백반가루를 1돈씩 뜨거운 물에 타서 먹는다. 產後에 목소리를 낼 수 없어 말을 못할때는 茯苓補心湯(血門)을 쓴다. 칠진산(七珍散, 寶鑑) 產後에 말을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人參 生地黃 石菖蒲 川芎 각 2돈, 細辛 防風 眞砂 각 1돈을 가루내고 1돈씩을 薄荷 달인 물에 타서 먹는다. 팔진산(八珍散): 위의 處方에 감초 1돈을 더한 것이다.

이처럼 濟衆新編의 번역에 있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과 해석상의 어려운 부분이 상당수 있었고 또한 기록상의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3) 醫門寶鑑과 濟衆新編의 상관관계

濟衆新編이 쓰여진 당시에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實用主義 사상의 영향을 받아 번잡하고 나열된 醫書보다는 임상에 직결되게 簡易化되었는데, 그 醫書 중에서 醫門寶鑑과 濟衆新編의 상관관계를 대략 비교하여 보는 것도 하나의 의의가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먼저 醫門寶鑑에 대해서 김홍균의 <醫門寶鑑에 관한 醫史學的 考察>에서 引用하여 살펴보면 “醫門寶鑑은 病症을 중심으로 11문의 病門을 들고, 그 病門에 해당되는 病源과 病因을 論한 다음에 治法과 用藥을 들어 古今名醫 및 자신의 經驗例를 끝에 붙여서 初學의 서툰 의사라도 病症에 따라 쉽게 그 處方을 찾을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일체의 空理空論을 止揚하고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임상적 병증에 중점을 두어 그 치법을 論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당시에 유행하던 실용적 학風과 그 類를 같이 하고 있으며, 기존의 체제를 무시한 경험적 소산의 독자성을 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편차에 있어서 임상적 의의가 있는 病症門을 1권부터 6권까지 앞에 두고, 基礎理論이라 할 수 있는 生理 病理 鍼灸 本草를 마지막 7,8권에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기초에 비해 임상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으니 基礎理論은 전체 119門중에서 겨우 9門 뿐이다. 이것은 임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래의 임상서에서처럼 각 해당부분에서 기초이론을 다룬 것이 아니라, 따로 분류하여 門을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임상적인 면에 있어서도 구성은 대체로 東醫寶鑑의 형태를 따랐는데, 風寒暑濕燥火의 六氣外感을 1권에 다루고, 內景雜病을 2권에서

다루었으며, 3-4권은 外形篇을, 5-6권은 婦人과 小兒를 그리고 7권에서 外科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비록 東醫寶鑑의 학風을 계승하였다고는 하나 실용적인 면에서 簡明함이 있으니, 그의 序文에 책을 펼치면 분명하여 病根을 손바닥 보듯 할 것 같음이 있다. 그리고 引用한 書目이 모두 96종으로 東醫寶鑑보다 10여종이나 많은 醫方書를 참고로 하고 있어서, 당시의 중국의 중요한 醫書를 망라한 셈이며 우리 나라의 鄉藥集成方 醫方類聚 醫林撮要 뿐만 아니라 御醫方과 俗方까지 引用되어 있다.

위에 醫門寶鑑에 대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醫門寶鑑은 병의 원인과 치법과 용약의 순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濟衆新編은 脈證治의 논리로 되어 있으며, 醫門寶鑑은 東醫寶鑑의 내용을 簡易化하는 동시에 실용적인 간명함을 같이 취하고 있는 반면에 濟衆新編은 東醫寶鑑의 번잡한 것을 없애고 요점만을 취하여서 실지 임상에 편리하도록 서술한 것이다. 또한 引用 書目도 醫門寶鑑은 국내외의 많은 醫書들을 참고로 하고 있는 반면에 濟衆新編은 임상에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醫書들의 處方만을 引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차는 濟衆新編이나 醫門寶鑑은 東醫寶鑑에 따랐으나 濟衆新編과 醫門寶鑑은 六氣外感 內傷雜病 外形 婦人 小兒 순으로 東醫寶鑑과는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 임상에 많이 나타나는 질병의 순으로 되어 있음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 濟衆新編의 處方에 대해서

우선 범례에 보면 “脈證治 3조항을 여러책들 중에서 가장 요긴한 것만 취해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려워 引用한 책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단지 處方 아래에만 찾아볼 수 있도록 책 이름을 표시하였다.”라하여 脈證의 引用冊 이름은 없지만 處方들은 주로 東醫寶鑑에 실려 있는 處方들을 引用하면서 그외의 국내외 20여종의 醫書들의 處方들을 引用한 것을 기록하였다.

1) 東醫寶鑑과 濟衆新編에 나오는 處方중에서 單方 및 治法中の 處方과 論中の 處方は 제외하고 비교하여 보면,

가) 東醫寶鑑과 濟衆新編에 나오는 處方 종류

東醫寶鑑에 나오는 處方の 종류로는 23여종이 있는데

湯散丸丹膏元飲子方藥酒煎粥餅油고錠粉雪匙水光屑

濟衆新編에 나오는 處方の 종류로서는 21여종이다.

湯散丸丹膏元飲子方藥酒煎粥餅고膠錠糖金茶光

이처럼 東醫寶鑑에는 있고 濟衆新編에 없는 것이 粉雪匙水屑이 있고

濟衆新編에는 있고 東醫寶鑑에 없는 處方이 膠糖金茶가 있다.

나) 東醫寶鑑과 濟衆新編의 處方 비율

a, 東醫寶鑑에 나오는 處方の 갯수는 약 4066이지만, 濟衆新編에 나오는 處方들은 실제 임상에 필요한 것들로서 處方の 갯수는 약 541개이고 東醫寶鑑에서 引用한 處方の 갯수는 약 397개이다.

b, 또한 濟衆新編에 나오는 處方の 갯수는 약 541개로서 이것은 東醫寶鑑에 대한 濟衆新編의 處方갯수비율을 보면 약 0.13%를 차지한다.

c, 濟衆新編의 處方 541개중에서 東醫寶鑑에서만 引用한 處方の 갯수는 약 397개로서 東醫寶鑑의 處方數에 약 0.08%만 引用한 것이다.

d, 濟衆新編의 處方數 541개중에서 東醫寶鑑에서 引用한 處方數 397개의 비율은 약 0.73%를 차지하고 있다.

e, 濟衆新編의 處方數 541개중에서 東醫寶鑑의 醫書에서 引用한 處方數 144개의 비율은 약 0.26%를 차지한다.

2) 東醫寶鑑外의 醫書 21여종에서 引用한 處方내용을 보면,

A) 保元: 탈명통관산(風) 성향정기산(風) 삼생음(風) 반룡고본단(風) 단취침환(風) 가미팔선탕(風) 이비각장탕(濕) 팔미소요산(火) 향구화중환(內傷) 삼령백출산(內傷) 팔선반룡고(內傷) 안신복수탕(夢) 우공산(小便) 청상전통탕(頭) 장수명목환(眼) 가전양간환(眼) 거풍청열산(眼) 산호자금고(眼) 당귀보혈탕(乳) 옥로음(乳) 소간음(脇) 이모청순산(咳嗽) 쾌견탕(積聚) 일방(6, 癰疽) 천금종자방(婦人) 보천옥사단(婦人) 속사장원단(婦人) 오봉환(婦人) 선전종자약주방(婦人) 천선등산(婦人) 귀출보산탕(婦人) 이합탕(婦人) 화비음(婦人) 저신탕(婦人) 소온경탕(胎) 가감사물탕(胎) 가미폐독산(胎) 청비양위탕(小兒) 인삼지황환(小兒) 소독보영단(痘疹) 가미신공산(痘疹) 귀룡탕(痘疹), 手足癱瘓條에 肥實하면 疏風順氣散(大便) 肥虛하면 십전대보탕(虛勞) 독활기생탕(足門), 豫防中風條에 조복 옥미지황환 팔미환(五臟) 모복 죽력지출환(痰飲), 風비조에 인습마목 향소산(寒門)가창출 마황 계지 백지 강활 모과

B) 入門: 성향정기산(風) 인삼삼백탕(寒) 삼건탕(寒) 흑석단(寒) 여곽탕(暑) 향갈탕(暑) 팔미소요산(火) 보화환(內傷) 이신교제단(虛勞) 경옥고(身形) 인삼고본환(虛勞) 보중행습탕(脹滿) 사제향부환(胎) 도인산(胎) 백강산(小兒) 양유방(小兒) 평화음자(小兒) 시호산(小兒) 우황포룡환(小兒) 마황갈근탕(小兒) 비아환(小兒) 소유식환(小兒) 계비산(小兒) 양간환(小兒) 소독보령단(痘疹) 痘疫條의 脈法 辨證條에 삼대중초생지512일변증필평화음자,

C) 回春: 안희이중탕(寒) 죽여온담탕(寒) 만역환(暑) 진사기제환(精) 서각지황탕(血) 연진탕(蟲) 청위사화탕(口舌) 지축이진탕(胸) 강계탕(腹) 활혈탕(腹) 쾌견탕(積聚) 행습보기양혈탕(浮腫) 도수복령탕(浮腫) 나려고(諸瘡) 기효고(諸瘡) 일소광(諸瘡) 거독탕(諸瘡) 삼백산(諸瘡) 추독고(諸瘡) 군중일념금(諸瘡) 울금고(諸瘡) 만병무우고(雜方) 조정종옥탕(婦人) 이비탕(婦人) 보산지사탕(婦人) 가감사물탕(胎) 소식병(小兒) 극건고(小兒) 解毒門에 오탄수질서연 오탄금은동철연침전독설

D) 醫林: 소시호육군자탕(寒) 감응원(大便) 박하전원(咽喉) 비한단(瘡瘍) 환혼탕(邪祟) 일방(2, 痘疫 邪祟) 호박고(諸瘡) 옥정고(諸瘡) 칠보빈랑산(諸瘡) 사향경분산(諸瘡) 마풍고(諸瘡) 유향남유고(諸瘡)

E) 正傳: 양간원(眼) 천금맥문동탕(咳嗽) 환혼탕(邪祟) 일방(3, 邪祟)

F) 丹溪: 소서폐독산(暑) 사궁산(血) 죽력달담환(痰飲) 소독탕(痘疹)

G) 本草綱目: 경옥고(身形) 칠보미염단(身形) 두속환(婦人)

H) 靈樞: 출미반하탕(夢) I, 得效方: 삼생음(風) J, 衛生方: 경옥고(身形)

K) 辟邪方: 경옥고(身形) L, 집략: 환소단(前陰) L, 景岳: 염로독(解毒)

M) 赤水: 장원탕(浮腫) 노자온방(痘疫) N, 醫宗: 계조風(婦人)

O) 濟陰: 종자방(婦人) P, 丹經: 종자방(婦人) Q, 保嬰: 우황해독단(小兒)

R) 휘편: 우황해독단(小兒) S) 痘疹心法: 당귀양심탕(痘疹) 두후암(痘疹)

T) 장씨經驗: 귀록이선고(虛勞) U, 황씨경험: 단청음(內傷)

V) 조씨經驗: 두후암(痘疹)

위에 본 것과 같이 壽世保元 47, 醫學入門 25, 萬病回春 28, 醫林撮要 15, 醫學正傳 6, 丹溪心法 4, 得效方 1, 백대醫宗 1, 衛生方 1, 本草綱目 3, 號選方 1, 醫方集略 1, 赤水玄珠 2, 景岳全書 1, 濟陰綱目 1, 丹經 1, 保嬰撮要 1, 痘科匯編 1, 痘疹心法 1, 그외에 황씨 조씨 장씨의 經驗方 1개씩의 方門을 引用하는데 著者 자신이 직접 임상에서 경험하여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만을 기재하였다.

3) 동시에 大便門 28조항처럼 "한 여름철에 暑熱로 인한 痢疾에 赤白痢를 論할 것이 없이 --- (中略) --- 낫지 않는 것이 없다. 暑熱이 아니면 써서는 안된다 -- (中略) -- 일

반적으로 삼연탕을 쓰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한 것처럼 중간중간 저자 자신의 견해와 치료방법 그리고 경험處方들을 「新增」이라고 표시하여 같이 기록하고 있다.

a) 저자가 실제 임상에서 경험하여 보고서 기록한 處方들을 보면 和解飲(寒) 하천고(虛勞) 천일보진단(虛勞) 양육탕(虛勞) 계고(虛勞) 우황고(血, <婦人門의.... 쓰이는데 필자의 경험으로 齒齩 舌齩에도 경험을 한 것이다>) 수자목향고(大便) 윤혈음(大便) 강활음(頭, 養血去風湯에 나옴) 가미용석산(口舌) 용주산(牙齒) 굴회음(前陰) 치나력방(諸瘡) 생기고(諸瘡) 독부산(諸瘡) 일방(諸瘡) 진반산(諸瘡) 해독산(諸瘡) 천포창방(諸瘡 3개) 청운생기고(諸瘡) 황운출독고(諸瘡) 신성산(諸瘡) 구창방(諸瘡) 치거창방(諸瘡) 자선방(諸瘡) 소벽청기탕(小兒) 만안고(小兒) 고련환(小兒) 저담산(小兒) 등이 있고,

b) 그외에 경험한 것으로서 다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전광(神): 구보(拘寶)를 두부속에 넣고 찌서 익혀 두부는 버리고 구보만 취하여 곱게 가루내고 미음에 타서 먹는다. 색이 푸른 것이 좋고 흰 것은 조금 나쁘다.
咽喉病皆屬火(咽喉): 형체는 즐거운데 뜻이 괴로우면 咽喉에서 병이 생기는데 귀비탕(神門)에 人蔘 木香을 빼고 黃連(술에 적서 볶은것) 靑皮을 더하거나 或은 山梔子를 더한다.

水腫治法(浮腫): 나복뿌리를 진하게 달여 먹는데 전체도 좋다. 바로 당다리 불취이다.

諸瘡(瘡瘍): 瘡疾初期에는 연고패독산(癰疽)에 황금 1돈을 더하고 열이 심하면 석고 지모를 더한다

脈法(瘟疫): 入門에 ‘疫氣는 진찰에 구애받지 않는다’라 하였고 도절암(陶節菴)은 ‘약을 안쓰더라도害는 없다’라 하였으니, 지극하다 이 말씀이며, 대개 脈이 和緩無力하면 살고, 躁疾濇하면 죽는다.

胎驚癇風(小兒): 태속의 송아지똥을 젖에 개어 먹인다.

感冒風寒(小兒): 파수염을 잘게 찌르고 참기름을 넣고 1-2번 끓여서 먹으면 감모 및 담수를 치료하고 또 驚風初期를 치료한다.

그외에 內傷의 內傷飲食宜吐宜下條와 충의 연반산, 癰疽의 발정법, 婦人의 단녹용탕, 小兒의 丹毒條에 역시 경험한 것들을 더하여 기록하고 있다.

특히 浮腫門의 新增에는 鄉名으로 당다리불취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4) 일반적으로 세상에 널리 쓰이던 處方들도 또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오중고(虛勞) 세안탕(眼) 風高(眼) 기원고(消渴) 우분위법(癰疽) 추맥위법(癰疽) 삼인고(癰疽) 토롱고(小兒) 오퍼차(養老) 그 외에 당시 사용하던 것들을 속방(俗方)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하였다.

5) 濟衆新編은 당시 宮中에서 썼던 處方들을 별도로 기록하고 있는데 內局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다. 內局 處方은 모두 36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호탕(序文) 우유죽(身形)은 東醫寶鑑의 處方名은 같으나 處方內容은 다르게 만들었고, 박하전원(咽喉) 신성벽은단(瘟疫) 부용향(雜方) 의향(雜方) 육향고(雜方) 포룡환(小兒) 小兒포룡환(小兒) 小兒청심환(小兒)은 東醫寶鑑과 處方名은 같으나 한 두가지 약제만을 加味만 한 것이며, 사유환(雜方)은 內局에서 東醫寶鑑에 없는 處方內容을 별도로 만든 것이고, 조전약법(雜方)은 東醫寶鑑의 製法內容과 다른 것이다. 加味逍遙散(火門)에는 王의 병을 치료한 경험담이 기록되어 있고 천금광제환 內傷 處方은 궁궐에서 만들어 軍兵에 내려보낸 기록도 있다.

가) 內局에서 만들어 썼던 處方: 牛黃清心元(風) 목향보명단(風) 제호탕(暑) 구

미청심원(火) 천금광제환(內傷) 입효제중단(內傷) 우유죽(身形) 신보원(氣) 소합향원(氣) 용뇌안신환(神) 사청환(五臟) 감응원(大便) 수자심향고(大便) 우황양격원(咽喉) 용뇌고(咽喉) 가감박하전원(咽喉) 박하전원(咽喉) 인진환(黃疸) 비한단(瘡癤) 신성벽은단(瘡癤) 태울자금단(解毒) 비급환(救急) 부용향(雜方) 의향(雜方) 육향고(雜方) 신선태을고(雜方) 만병무우고(雜方) 신이고(雜方) 운모고(雜方) 사유환(雜方) 조전약법(雜方) 조신곡법(雜方) 포통환(小兒) 우황포통환(小兒) 小兒청심환(小兒) 소독보영단(痘疹)

나) 東醫寶鑑의 處方名은 같으나 處方內容이 다른것

A) 제호탕(暑) <오매육별말1근 초과1량 측사백단향각5돈연필5근우새말입필미불 각균 자기성냉수조복 내국>백청1두선전미불후입오매말10량백단말8돈측사말4돈초과3돈화균 용

B) 우유죽(精) 우유즙1승입정미세심자죽령속상복취의노인 內局>우유성어와내정기 다소지한이랑입청수전오도한시입세미심령속후입염 수소허조미이출명타락죽

다) 內局에서 東醫寶鑑의 處方에 한 두가지 약제를 加味하여 쓴것

A) 박하전원(咽喉) 백두구가미

B) 신성벽은단(瘡癤) 호경골가미

C) 부용향(雜方) 침속백단향각2량영통향감송향각1량정향삼내자팔각향각7돈소뇌5돈 백급4량 (內局)침속백단향각1.6량영통향감송향각1.2량정향5돈팔각향삼내자각4.25돈 소뇌비초각2.35돈백급8돈

D) 의향(雜方) 모향필초1량백지5돈침속백단향정향영통향감송향팔각향삼내자각2돈 소뇌2돈 용뇌 (內局)침속백단향정향9량영통향감송향팔각향삼내자소뇌비초각7.6돈용 뇌1돈

E) 육향고(雜方) 백단향침속정향영통향감소향팔각향각1량필3승삼내자5돈소뇌3돈동 과인7량 (內局)백청1두동과인8.6량 삼내자말2량소뇌말1량용뇌말1돈

라) 東醫寶鑑에 없는 내용을 內局에서 별도로 만들어 쓴것

사유환(蛇油丸): 療癰 및 술을 마셔서 오는 熱痰 痰腫 혹은 熱痰으로 積이 된 것 과 혹은 瘡疾 혹은 小兒蛔蟲 등을 치료한다. (內局) 뱀기름(머리와 꼬리를 제거하고 법에 따라 기름을 낸것) 2되, 녹두가루 1말을 잘 섞어서 술로 녹두만하게 알약을 만 들어 생강달인물이나 따뜻한 술로 먹는다. 이 약은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虛冷한 사람은 피해야 한다.

마) 東醫寶鑑의 製法內容과 다른것

조전약법(造煎藥法)

(寶鑑): 백강 5량, 계심 2량, 정향 호초 각 1량반, 대추고약(삶아서 씨는 버리 고 대추살을 취하여 膏藥을 만든것) 6되, 阿膠 연필 각 9되. 먼저 阿膠를 녹인다음 꿀 과 대추를 넣고 녹여서 위의 4가지 약가루를 잘 섞어 달여서 체에 걸러 단지에 보관 하여 굳은 다음에 쓰면 매우 좋다. (內局)풀한말, 阿膠 한말반을 달인 다음 계피가루 6량, 관계가루 6량, 건강가루 1.4량, 호초가루 5돈, 정향가루 3돈, 대추살 8홉을 잘 섞어서 여러 번 달인 다음 단지에 보관하여 굳은 뒤에 쓴다.

바) 王의 病을 치료한 경험을 기록하여 놓은 것

火門 潮熱條의 八味逍遙散에 보면 “甲寅년에 임금께서 목구멍에 조금만한 종기 가 생겨 밤낮으로 煩躁하시면서 잠자리가 편안하지 못하시기에 이 약을 드시게 하였 느니 效驗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內局日記에 있다.)”

사) 內局에서 만들어 軍營에 내려보낸 기록

內傷門 食傷消導條의 천금광제환, 입효제중단에 보면 “庚戌년에 內局에서 만들어

각 兵營에 내려보내 軍兵들을 치료하게 하였다.”

6) 養老門에서는 노인의 병은 아이와 젊은 사람과 다 달라 氣血이 쇠약하므로 차가운 약이나 땀을 내거나 설사를 시키는 약을 쓰지 말고 어느 곳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穀食類 果實類 菜蔬類와 藥性이 順한 약 等等으로 주로 氣血을 保養해야 한다고 하였고, 특히 保養하는 處方만을 기록하여 놓았는데, 이것은 食餌療法을 위주로 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濟衆新編의 養老門에 실려 있는 處方들을 살펴보면,

소임죽(蘇荏粥) 삼선죽(三仙粥) 귤행환(橘杏丸) 연충음(蓮蔥飲) 연자죽(蓮子粥) 행도죽(杏桃粥) 소행죽(蘇杏粥) 진자죽(榛子粥) 산사죽(山査粥) 울자죽(栗子粥) 모과죽(木瓜粥) 홍시죽(紅柿粥) 백시죽(白柿粥) 이청음(梨菁飲) 계숙음(桂粟飲) 의이음(薏苡飲) 영수당(寧嗽糖) 우골고(牛骨膏) 설리고(雪梨膏) 이봉고(梨礬膏) 계초정(桂椒錠) 오과차(五果茶)

5. 藥性에 對해서

濟衆新編의 제 8권에 기록되어 있는 藥性は 公廷현(公廷賢)의 만병회춘(萬病回春) 수세보원(壽世保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별도로 83개를 더하였다. 그런데 萬病回春은 240개이고 壽世保元은 400개이지만 임상에 주로 쓰이는 필요한 藥材만을 골라서 386개를 기술하였다.

386개 약제의 각각의 性味와 적용증을 集約하여 놓으면서 8言絶句 형식으로 歌를 만들어 기록하였다. 上段에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외국에 생산되는 약제들은 唐이라고 표기하고, 下注에는 간단한 製法 및 주의사항을 첨가하여 놓았으며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제의 鄉藥名을 한글로 기록하였다.

별도로 더한 83종의 약제는 다 우리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서 주로 海魚類 穀食類 果實類 등으로서 예로서 미역 대구 해삼 콩 팥 수박 호박 등이다. 이 濟衆新編의 藥性篇은 고려후기부터 이어져 오던 民族自主醫學을 계승하여 신토불이(身土不二)의 정신으로 中國産의 藥材의 사용을 적게하고 自國産 약제의 사용을 임상에 권장한 것을 엿볼 수 있다. 本冊의 藥性篇은 훗날 方藥合編(514개) 藥性歌의 根幹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체계와 내용을 簡潔整沿하게 記述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질병을 診斷治療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優越性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結論

濟衆新編의 研究와 翻譯을 通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濟衆新編은 太醫院 首醫 康命吉이 1799년(朝鮮朝 正祖 23年)에 王命을 받아 著述한 官書이다.
2. 東醫寶鑑의 簡易化 過程에서 醫門寶鑑과 濟衆新編 등이 나왔고, 더 後代에는 醫宗損益 方藥合編 등이 나왔다. 특히 濟衆新編은 方藥合編의 편차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것은 東醫寶鑑 方藥合編으로 이어지는 架橋役割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濟衆新編은 韓國醫學史의 중요한 특징을 代辯하고 있다.
3. 濟衆新編의 편차는 東醫寶鑑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데, 東醫寶鑑은 養生 生理 病理 藥物 治療學的인 綜合書인 반면에 濟衆新編은 風寒暑濕燥火에서 小兒 痘疹 癩疹 養老 藥性歌로 이루어져 실지 임상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였고, 이러한 편차는 이후 方藥合編의 편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4. 濟衆新編은 東醫寶鑑을 主本으로 하여 편차를 따르고 있으나, 내용은 醫學入門의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다.

5, 濟衆新編은 東醫寶鑑 醫學入門 萬病回春등을 비롯한 國內外 醫書 21種을 참고하여 요점만을 취하고 경험방을 덧붙여 임상에 편리하도록 서술한 것이다.

6, 濟衆新編에는 康命吉 자신의 견해와 치료방법들을 「新增」이라고 표시하여 다수가 기록되어 있다. 특히 신증관견에서 임상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밝혀 둔 것 등이 許浚의 東醫寶鑑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7, 濟衆新編에는 內局處方이 모두 36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는 東醫寶鑑의 處方名은 같으나 處方內容이 다른 것도 있고, 處方은 같으나 한 두가지 약제만을 加味만 한 것도 있으며, 內局에서 東醫寶鑑에 없는 處方內容을 별도로 만든 것도 있고, 東醫寶鑑의 製法內容과 다른 것도 있는데 희귀하고 重劑가 많다.

8, 濟衆新編 내용 중에는 王의 병을 치료한 경험담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또한 궁궐에서 약제를 만들어 軍兵에 내려 보낸 醫史學的인 記錄도 있다.

9, 濟衆新編의 藥性篇은 萬病回春의 240首와 壽世保元의 400首에서 임상에 많이 활용되는 303首만을 선택하고 별도로 83首를 더하였다. 새로 더한 83首는 우리 나라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식물 위주로 더한 것이다. 이 약제의 性味와 적용증을 集約하여 놓고 또한 鄉藥名을 기록하였다. 이 濟衆新編의 藥性歌는 훗날 方藥合編 (514首) 藥性歌의 根幹이 되었다.

10, 濟衆新編의 養老門에서는 노인들에게 쓸 수 있는 處方들 특히 保養하는 處方만을 기록하여 놓았는데, 이것은 食餌療法을 위주로 한 내용으로 보인다.

參 考 書 籍

- 1, 論語集註, 서울 明文堂 1976
- 2, 洪元植校,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 3, 洪元植校,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 4, 金斗鐘, 韓國醫學史 서울 探究堂 1981
- 5, 金斗鐘, 東西醫學史大綱 서울 探究堂
- 6, 孫弘烈,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 서울 수서원 1988
- 7, 許浚, 原本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0
- 8, 國譯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 9, 周易集註, 서울 以二會 1982
- 10, 書傳集註, 서울 以二會 1982
- 11, 司馬遷, 史記 서울 景仁文化社
- 12, 楚書, 서울 景仁文化社
- 13, 張基權等譯, 老子 莊子 서울 三省出版社 1979
- 14, 漢書, 서울 景仁文化社
- 15, 中庸集註, 서울 明文堂 1976
- 16, 宋哲鎬, 金元四大家에 대한 研究, 慶熙大 博士學位論文 1986
- 17, 李涇, 精校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0
- 18, 國譯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4
- 19, 朱甲應譯, 國譯萬病回春 서울 癸丑文化社 1977
- 20, 王家編著, 中醫常用術語集註
- 21, 壽世保元
- 22, 朱震亨,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出版社 1982
- 23, 龔廷賢, 增補 萬病回春

- 24 李璟模, 漢方秘錄 수원 성진출판사 1983
- 25 尹吉榮, 東醫學의 方法論研究 서울 成輔社 1983
- 26 辨證論治 方藥合編
- 27 趙憲榮, 通俗韓醫學原論 서울 成輔社 1978
- 28 韓醫學의 批判과 解說, 杏林書院 1957
- 29 尹吉榮, 四象體質醫學論 서울 崇一文化史 1980
- 30 李鐘馨, 淸剛醫鑑 서울 成輔社 1984

KYOBOKU
교보문고